

반월문화제 종합축제 기틀마련

3천여명의 학생, 시민 등 참여 성황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이 주최하고 포천예술인동우회가 주관한 제18회 반월문화제가 지난 16일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에서 박운국 시장을 비롯한 홍성훈 시의회의장, 변진수 포천교육장, 시의회의원등 각급기관 단체장과 3천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문예활동의 저변확대와 문화적 창작의욕고취는 물론 심성순화를 목적으로 개최돼 유치부에서부터 초·중·고·대학생·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가했다. 이날 대회에서 이만구 포천문화

원장은 대회사로 통해 "반월문화제는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열어가는 지역의 축제로써 손색이 없도록 지역의 긍지와 자부심에 걸맞는 주제를 발굴하고 내용을 보완하는 등 명실상부한 종합축제로 승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가족단위로 3천여명이 참가하여 부문별로 백일장에 708명, 사진 418명, 서예 72명, 사생 1천177명 등이 참가해 실력을 발휘했으며 판화, 데생, 한국

화, 유희, 포스터 부문도 진행됐다.

특히 부대행사로 포천예술인동우회와 사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포천사진동우회 등 3개 사진동호회에서 사진전시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종이접기 마당도 열려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번 문화제에 제출된 2천여점의 작품 심사는 각 부문 전문가들에게 의해 엄격하게 진행되며 시상식과 수상 작품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오세암 20년만에 뮤지컬로 제작

26일, 27일 포천반월아트홀 공연

극단예술은 오는 26일과 27일 이틀간 모두 6회에 걸쳐 뮤지컬 오세암을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 무대에 올린다.

이번 작품은 만4세이상 어린이가 감상할 수 있는 어린이 뮤지컬로 26일은 오후1시, 4시, 7시 등 3회공연이며, 27일은 오전9시30분, 오전11시10분, 오후2시 등 세차례 공연된다.

입장권은 R석7천원, S석 5천원, A석3천원, 단체3천원(20인 이상, 단 5월 27일만)이다. 입장권 예약은 포천반월아트홀 (☎530-8938 ~ 40/홈페이지 http://www.bwart.net)이나 인터넷(☎1544-1555/홈페이지 http://ticket.interpark.com)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555-0822 ~3(극단예술)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세암은 장채봉 원작의 동화 오세암이 뮤지컬로 제작되었으며 애니메이션 영화로 잘 알려져 있으며 어른과 어린이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포천의 명인탐구 (95)

애국지사 (愛國志士)

이주호(李周鎬) · 1863(철종14)



리효종 (포천향토사연구소장)

포천 가산면 공촌 출신이다. 그는 일찍이 융희(隆熙-순종황제 시절) 연간에 일제침략에 항거하여 의병전쟁에 참여하였다가 1909년에 체포되었던 일이 있었다.

그 후 일제에 의한 국권상실 이후 국권회복운동을 모색하다가 중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대한독립당에 가입하여 김기한(金起漢), 강지형(姜芝馨), 조종하(趙宗夏)등과 대한독립단 조직확대와 독립 운동 군사금 모집 활동을 하였다. 이주호는 거족적인 3.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운동을 더욱 조직적으로 전개할 기회를 모색하다가 어릴때부터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동향인 강지형(姜芝馨)을 1920년 9월경 만나 그의 집에서 대한독립단의 목적과 취지를 전해 듣고 적극 찬동하기로 하고 대한독립단에 입단했다.

대한 독립당에서는 국외에서의 활동만으로는 국권을 회복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국내 각 지방에 대한독립단 지단을 설치하여 동지를 규합하고 확대하여 국내외와 연락을 공고히 해 군사금 모집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1919년 11월 국내지단을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평안남도 와 황해도 지단이 순조롭게 결성되자 서울에 들어와 동지를 규합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대한독립단 총재 박장호의 지령을 받고 경기도 지단 조직을 설치하기 위한 유인물의 작성과 그 배포를 하고 있었다.

이때 이주호는 유인물을 이기룡(李起龍)등과

함께 전국 각지에 배포하여 독립운동에 참가를 촉구하였으며 감지형과 함

의병에서 국권회복운동가로 활약

대한독립단 활동 인정 1963년 대통령 표창

경기도 지역의 대한독립단 지단 조직에 노력하였다.

특히 이주호는 유인물 중 임시통치서령서 통지문과 강지형의 서신을 광주군 공촌리(宮村里)의 이법석(李範錫)에게 전달하여 주었으며 강지형과 함께 경기도 지단 조직에 노력하였다.

대한 독립단 지단을 총지휘하던 김기한과 강지형은 지단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하여 유명인사의 참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의친왕 이강(義親王 李熙)을 총지휘관으로 삼으려 하였다.

이를 위해 이들은 의친왕에게 접근하려 하던 중 1920년 11월 9일경에 체포되었다.

그 후 김기한이 대한독립지단의 설치 임무를 띠고 국내로 잠입한 사실이 발각되어 관계인사 13명이 피체되고 다수의 독립운동 관계문서가 압수되었다. 이주호도 이때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에서 8월형의 선고를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이주호의 공적을 인정 1963년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했다.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대표자회의

포천 반월아트홀서 지난 18일 개최



△ 이희용 포천연극협회장이 타 시·군 대표의 질문에 답변하고있다

한국예총경기도연합회와 포천시 가 주최하고 한국연극협회 경기도 지회가 주관하며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하여 오는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포천반월아트홀에서 개최되는 제14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대표자 회의가

지난 18일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도내 31개 시군 아마추어 연극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구체적인 일정을 최종 확인하는 자리로서 포천시의 협조사항 등을 협의했다.

전국에서 경기도에만 유일하게 개최되는 아마추어 연극제가 포천시에서 개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희용 포천연극협회 회장은 "그 동안 무대가 없어 연극관련 울리가 무척 힘들었던 지역이지만 포천반월아트홀이 설립됨으로써 프로극단의 연극도 중요하지만 연극의 순수성을 거스름없이 표현하는 아마추어 연극제를 유지함으로써 지역 학생들이나 주민들에게 연극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인식을 심어주고자 2년 전부터 유치계획을 수립해 지난해에 부천과 결합해 포천으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바늘」의 작가 천운영과 함께

대진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주최 제7회 작가와의 대화 「바늘」의 작가 천운영과 함께 오는 25일 오후3시30분 대진대 인문대 시청각실에서 개최된다.

수필가 김창종의 <포천 이야기> (98)



임진왜란과 병자호란과 포천

을 세웠다.

또 이덕형은 명나라로 이항복의 예마를 빌려 타고 건너가 구원군 파견을 받아내는데 성공명군 이여송의 집민관으로 맹활약하는 큰 공을 세웠다.

권중남은 임란시 금산군수로 병졸 수백명을 모집 의병고령명, 조현의 지원을 받아 적과 격전 끝에 장렬히 순국하였는데 금산에 순의비(殉義碑)가 있다. (이조판서추증)

이성길님은 경성에서 정문부와 함께 의병을 일으켜 길주, 명천, 쌍포성에서 대승을 견우어 수성도 활약에 임명되었다.

황정욱은 호소사(號召使)로 왕자 순화군을 호종하여 강원도

에 들어가 의병을 소집하는 격문을 8도에 돌렸으며 의령에서 모반자 국경인에 의해 침해, 순화군과 함께 왜군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다.

호란시에는 조득남이 만호로서 인조를 호종하여 남한산성에 들어가 자원 출전하여 왜군을 살해하는 전과를 올리고 두 차례 격전 끝에 전사 하였다. 후에 충신정려가 내려졌다.

이시백은 서성장(西城將)으로 남한산성의 수비를 담당하였고 척화신(斥和臣)으로 불려 아들을 불모로 청나라에 보내기도 하였다.

또, 이괄의난과 정묘호란 때 인조를 호종한 서성, 병자란때

인조를 호종한 이항복의 아들인 이성남, 그리고 정지상, 이영등이 있었다.

이렇듯 내 고향 포천에는 조선시대 임진, 병자란의 어려운 전란시에 국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구하려는 충신들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못할 자랑스러운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고 본다.

특히, 조선역사의 두개의 큰별인 오성부원군 백사 이항복님과 한을 이덕형이 내 고향 포천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기록 필만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한을 이덕형님이 만리타국 명나라로 구원병을 청하려 갈 때 예마(愛馬)를 태워 보낸 백사 이항복님의 우정이야말로 청사에 길이 빛나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 또한 백사 이항복님의 아들 이성남님도 병자호란시 인조를 호종하여 충성을 다했다는 사실은 더욱 우리의 가슴을 펴게 한다.

필지연락처 : 02-382-2434

신선한 활어와 다양하고 정갈한 음식이 가득한 곳 '포천활어회'

"항상 깨끗하고, 신선한 음식, 친절과 감사하는 마음, 저희 포천활어회센터 가족의 숙원입니다"

- 광어 55,000
- 우럭 60,000
- 농어 65,000
- 도미 65,000
- 돌 돔 시가
- 도다리 시가
- 놀래미 시가
- 감성돔 시가



단체 연회석 완비 · 넓은 주차장 보유



주소 :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448-1
 전화 : 031-543-5065
 대표 : 윤보순

